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복음으로 여는 골로새사-

잠언 8:22-31, 골로새서 2:1-7

정윤돈 목사님

서론 : 골로새서 이해를 위한 배경

오늘은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흔들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죠?” 물어 보라. 우리 초등학교 램넛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 주는 집사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물어봤다고 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이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기름 부음 받았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는지 아세요?” “모르지.” “선지자, 제사장, 왕이예요.” 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는가?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죄, 사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길이시다. 구원의 길일 뿐 아니라, 모든 길이 되신다. 그래서 활용하여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길이 막히면 “길 되신 예수님, 길이 막혔습니다. 길을 열어 주세요.” 반드시 활용하고 적용해야 한다.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용서해야 한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형제도, 가족도,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니, 나도 다윗처럼 용서하게 하옵소서.” 참 왕이시다. 혹은 암 세력,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문, 우리 나라의 왕이 되셔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복음적인 기도, 적용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왜 힘든가? 오직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기에도 빌고 저기에도 빌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 번 굳게 서기를 축원한다. 골로새교회에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흔들리니까, 그 골로새교회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시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인 줄 이해하면 된다.

(1) 골로새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도, 선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골로새교회는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훈련을 받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이후 안디옥교회의 파송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서 3차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지금까지 했던 전도운동을 집대성하여 사역을 한 것이다. 그 전력이 무엇이었던가? 신학교다. RTS였다는 말이다. 이것이 두란노 서원 운동이었다. 이렇게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그 지역에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대표적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다. 그 중의 하나로 양육을 받아 세워진 제자가 에바브라였고, 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교회였던 것이다. 이것은 제자, 신학생, 개척자 양육에 성공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목회자 쉽지는 않았다. 거대한 로마의 권력과 문화, 그리고 그 로마의 폼파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 이들도 흔들릴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이다.” 하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전달한 것이 골로새서였던 것이다. 골로새서 1:7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중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에바브라에게 잘 배웠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바울이 직접 골로새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골로새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 것이다.

(2) 골로새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고, 기록 시기는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였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교도소에 있던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다. 이때 쓴 것이 옥중서신이며, 골로새서도 그 중 하나다.

(3) 골로새서를 왜 기록했는가? 목회자이자 제자인 에바브라에게서 목회에 대한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목회자에게, 스승에게 질문을 잘 해야 한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다. 겸손하게 에바브라도 항상 보고했다. 바울도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항상 보고했다. 그런 것이 체질이 되어야 한다. 역대상 10:10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항상 물어야 한다. 기도를 무시로 하라고 했지 않나? 어떤 일든, 어떤 상황이든, 계속 주님께 질문해서 응답을 받아야 한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이 사소한 일까지도 그리스도께 질문하고 의지해야 한다. 그래야 사소한 것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항상 묻고 질문하고 응답받으라. 그렇게 해서 서밋이 되는 것이다. “에이, 이건 뭐 목사님께 말할 필요가 없지.” 이러면 그 영적 상태가 응답을 받기 힘든 상태가 된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든 삶에 대한 것이든, 항상 하나님께 묻고, 목회자들과 소통하시기 바란다. 제일 골치아픈 분이, 목회자와 의논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 주셨다.’ 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 강단메시지는 모른다. 목사님과 의논 안 한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한다. 그런데 많은 시행착오가 생겼다. 목사님이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기도 동역자로 인정하고 보고하고 소통하라. 그때 하나님이 흑암을 꺾어 주신다. 목사님의 조언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런데 결국 흑암이 꺾이고 응답이 오게 된다.

1. 골로새교회와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

큰 첫 번째로, 골로새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과,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나눠 보자.

(1) 골로새교회가 직면한 문제다.

① 그리스 철학과 학문에 비해 기독교의 진리는 수준 낮은 학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모든 학문과 철학은 플라톤에서 시작해서 플라톤으로 끝났다고 한다. 몇 천 년 전 사람인데도 그렇다. 책을 읽어보면 항상 결론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다. 많이 학문과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 천재들이 바탕을 다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고 말하는 것이 수준 낮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다. 골로새서 2:8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도덕, 윤리, 철학은 참고할 만한 것은 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한다. “나는 누구지?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고민한다 보니까, “어, 나는 생각하고 있네?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구나(Cogito, ergo sum).” 이것이 데카르트의 결론이었다. 그래서 어찌라고? (웃음) 그리스 자연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연구했다. 탈레스 같은 사람은 물에서 모든 것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나머지는 전부 헛된 속임수가 될 뿐이다. 한국에 2천 년 넘은 책이 있는가? 삼국사기도 천 년이 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수천 년 된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책이 지금도 적용되고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중국 문명의 역사도 3500년을 넘지 않는다. 그 전의 이야기는 다 모르는 것이다. 헛된 속임수에 불과하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이 4500년 밖에 되지 않았다. 인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 노아 홍수 이후 인구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지금 인구 규모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인류 역사가 1만 년이 넘는다고 하면 인구가 수백억 명이 되어야 한다. 지금 램넛들은 학교에서 헛된 속임수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 램넛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학문, 성경적 학문을 가르쳐야 한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많은 램넛들이 이미 사로잡혔다. 헛된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라.” 서울대 교육심리학과 학생이 메시지를 듣다가 시험을 받았다. “왜 그렇게 사탄, 귀신 이야기를 하지요?” 대답해 주었다. “그러면 인간의 정신적 문제, 교육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생겼지, 어디에서 생겼겠어? 그리고 해결책은 뭐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니야? 그 사이에 있는 틀린 것들은 너희가 연구해서 재해석, 재적용해서 바로잡으면 되는 것 아니겠나? 목회자는 원래 다른 것 틀릴 수 있어. 통계도, 사람 이름도 틀릴 수 있어. 그게 뭐 진리겠어? 설명하다 보면 틀릴 수 있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 심리학자, 경제학자, 교육학자 중에서 인류 문제를 해결할 이론을 낸 학자가 있어? 없잖아?”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지침서다. 최고의 치유의 지침서요, 심리학 지침서요, 경제학 지침서다. 성경에 다 있다. 유대인들은 성경 읽다가 모든 분야를 장악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모든 비밀을 찾아내어야 한다.

② 당시 대표적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것이 영지주의의 주장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으며, 예수님의 모습은 홀로그램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주장을 가현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2:9에, “그 인애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영으로 계시는가, 육으로 계시는가? 부활체로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드셨지 않나. 천국에 있을 때 우리도 훌쩍히 변화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귀신처럼 있었던 게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준 것이다.

③ 아직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다. 그래서 골로새서 2:11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혼에 할례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란다. 저주를 끊어버린 것이다. 사탄의,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린 것이다. 골로새서 2:16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교회(안상홍종교회)가 그렇게 한다. 절기를 아직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이 주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날마다 성탄절이다. 날마다 부활절이다. 날마다 그리스도인 것이다. 골로새서 2:17에,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인이다.”

④ 구원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지만, 후반부 3장과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끝났으니까 삶은 상관없다’ 하고 우리는 가르친 적이 없다. 전도자의 삶을 62가지나 말하고 있지 않나.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는 ‘전도자의 삶 살아라’ 하면 놀려서 못 산다. 어린 아이와 같이 때문이다. 예수 믿고 연합할 때는 대소변도 잘 못 가리는 갓난아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한다. 그러나 성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는데도 자기 앞가림을 못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야단치고 훈계해야 한다. 시간표가 있는 것이다. 미션 홈이 무엇인가? 제일 꾸지람을 듣는 곳이다. 제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이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한다. 강대상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빠져서 교회를 안 나왔다. 그러나 항상 그런 어린이 수준에 있으면 안 되지 않나. 어린이의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도전해야 한다. 그게 서밋이다. 바울의 서신은 항상 앞은 복음이고 뒷부분은 삶이다. 삶이 잘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

고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반성도 하게 되고, 삶의 치유와 갱신, 개혁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5:16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한다. 어린 아이는 안 착해도 된다. 잘못해도 귀엽다. 투닥거리면서 싸우면 그것도 귀엽다. 그런데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서도 사랑 가지고 싸우고, 증직자가 되어서도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하나. 꾸짖어야 할 일이다. 시간표를 잘 이해해야 한다. 처음에는 부족함이 많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모든 면에서 착해야 한다. 어릴 때 고전권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어릴 때는 착했는데 중학교 가면서 일진이 되었다. ‘아, 얘는 착한 게 아니라 순진한 것이었구나.’ 착한 게 그냥 착해지는 게 아니다. 굉장한 지혜가 있을 때 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순진하고 어리석으면 착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영향 받으면 금방 변질된다. 우리는 그런 착함이 아니다. 이윽고 있는 착함이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다. 양보도 하고 용서도 하는 것은 성령충만을 받아야만 유지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란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린 말을 하게 되고 종교혼합주의가 된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야 한다.

골로새서 3:8을 보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예수 믿는 권사, 집사 되었는데도 상소리를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우리 동창들을 보면 두 마디를 하면 세 마디가 욱이었다. “야, 너희들은 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아직 그렇게 상소리를 하니? 언어 순화 좀 해라.” 성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상소리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군대에 있을 때, 나는 다섯 명 친한 친구가 있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하는 친구였다. 우리 지방은 욱을 참 많이 하는 동네인데, 아이 이들이 욱을 안 하는 것이다. “왜 욱을 안 하니?” 놀랐다. 나하고 이유가 똑같더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이 있더라. 한결같이 욱 안 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골로새서 3:9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해도 지옥은 안 간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왜 욱을 하는가? 잘못된 지식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참된 진리의 지식이 들어갈 때 우리의 혀도 순화되고, 꿀을 것을 꿀게 되며, 버릴 것을 버리게 된다. 진리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영혼, 마음, 생각, 행동이 바뀌게 된다. 골로새서 3:12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하지 않는다고 지옥까지 않는다. 자비하지 않다고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성장해 가야 한다. 그게 성령의 열매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진다.

(2)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들어온 잘못된 믿음은 무엇인가? 신비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율법주의, 개교회주의, 그리스도를 모르는 신앙, 정확히 복음을 모르는 신앙,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신앙, 복음적인 삶이 안 되는 성도와 목회자들. 내가 목사니까 말할 수 있는데, 정말 성질이 너무 훌륭하게 안 좋은 목사님들이 많다. (웃음) 체질, 각인이 안 바뀌었다. 어린 아이처럼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나는 정말 안타깝다. 저런 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욱을 먹는구나 싶다. 기도해 주셔야 한다. 너무 짧은 시간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짧게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으니,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다. 성질도 더럽고 욱심도 많고 돈만 밝히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그런 분들을 보더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지 말고, 목사 된 것 자체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왜 세우셨는가? 너무 똑똑하면 변질되는데, 부족하니까 오직 예수밖에 모른다. 그래서 세우신 것이다. 여러분이 그 부족한 부분을 동역해서 채워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우리 후대 중에는 멋있는 삶도 되고 규모도 되는 멋있는 지도자, 사무엘같은 영적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21세기 세계를 복음화할 것은 우리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한다. 갱신, 개혁되어야 한다.

2. 골로새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큰 두 번째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1)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 분이시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하고, 그리스도께 귀결되어야 한다. 나는 왜 이러나 하고 자학하면 안 된다.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또 넘어졌는데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용서와 사랑과 인애가 필요하다.’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갱신되는 것이다.

(2) 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추악한 죄와 잘못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그분만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골로새서 1:15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창세기 3장을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공자, 맹자, 어떤 철학자, 어떤 과학자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 안 가게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있다.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노자, 장자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없다. 어떤 종교로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다. 사복음서에 나온 많은 기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는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본질을 바꿀 수 있다. 예수님은 시작부터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우리도 걸으라는 말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다. 우리가 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어떤 인물도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 이만희 문선명 공자 석가 마리아, 어떤 사람도 그 비슷한 이적도 일으키지 못했다. 가끔 뜰에서 눈을 흘렸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직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대속할 수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직이다.

(3) 세 번째로,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줄 믿으시기 바란다.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물질적인 것 뿐 아니라, 모든 제도, 윤리, 도덕, 질서까지 만드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멋있는 것을 좋아하고, 향기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비한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서 있다는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의 모든 자연 원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것이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세로부터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엄청난 것까지 응용해서 알 수 있게 된다. 골로새서 1:17에,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쯤느니라.” 무슨 말인가? 영어로 보면 쉽다.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이 hold together, 함께 붙잡혀 있다는 것이다. 주께서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 버리면 만물은 분열되고 해체된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사회도 문화도 건강도 든든히 서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선포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개인과 가정이 붕괴되지 않고 든든해진다. 건강해진다.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그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함께 하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든든해지는 것이다. 이게 안 되면 가정도 사회도 다 해체된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쯤느니라.” “He is before all things,”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다. is는 현재형이다. 존재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말한다.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고 계신 것이다. 골로새서 1:16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는가. 여러분, 최고의 진리, 최고의 지식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결론 : 골로새서의 영적 교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골로새서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1) 하나님과 영적인 지도자에게, 여러분이 사소한 것도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질문하라. “하나님, 이 사업은 어떻게 할까요. 이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끊임없이 질문하라.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통으로 만 하지 마시고, 부모님, 선생님, 특히 목회자들과 의논하라. 보고하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 많이 묵상해야 되겠다. 골로새서 3:2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위에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3)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복음을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도록 결단해야 한다. 진리의 복음을 어지럽게 하는 이단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며, 재해석, 재적용하며 재창조의 응답까지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골로새 교인처럼,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세계를 살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가 다시 한 번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